

2021학년도

함께하는 배움으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알뫼누리 교육과정 설명 및 학부모 연수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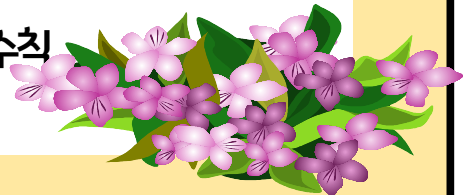
난 산 초 등 학 교

교무실 : 543-1861 행정실 : 543-1862

홈페이지 : <http://www.nansan.es.kr>

알외누리 교육과정 및 학부모 연수자료 안내

1. 알외누리 학교교육 소개
2. 연간 학사 일정
3. 학부모 연수자료
 - 1) 개인정보보호
 - 2) 아동학대 가정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 3) 나와 우리의 소중한 인권
 - 4) 학교폭력예방교육
 - 5)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 6)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 7) 교권보호 행복한 학교 만들기
 - 8)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 9) 흡연 예방 교육
 - 10) 감염병 예방 교육
 - 11)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수칙



학교장 인사말



따뜻한 만남과 행복한 배움이 가득한 난산 배움공동체에 3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교장 최성림입니다.

교육공동체가 얼굴을 맞대고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우선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난산초등학교는 ‘함께하는 배움으로 삶의 기쁨을 누리는 교육’이란 비전으로 열심히 배우고 바르게 행하며 더불어 살며 꿈을 가꾸는 어린이가 되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들의 맑은 눈빛 속에서 미래의 꿈을 보았고 선생님의 미소 띤 얼굴에서 제자들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산교육 가족 일원이 된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한 해 사상 초유의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모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는 백신 접종 등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저희 난산초 교직원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행복한 교실, 즐거운 교실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교육의 중심은 수업입니다. 교실마다 스스로 깨닫는 기쁨, 성실하게 배우고 익혀 성장하는 즐거움, 그리고 함께하는 행복함이 가득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7명의 우리 난산 어린이들이 저마다 자신의 빛깔을 찾고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굴하여 21세기형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구면에 속해 있으면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이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전문성을 지닌 열정 가득한 선생님이 있는 작지만 강한 학교답게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특기를 신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교육의 본질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학교로서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에는 학부모님들의 신뢰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과 열정에 학부모님들의 믿음과 응원, 참여가 보태진다면 더욱 더 행복한 배움터가 될 것입니다. 담임선생님과 소통을 통해 자녀에 대한 상담,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난산교육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봄꽃이 다 지기 전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학교 철학

함께 하는 배움으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어린이

‘함께함’은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하기 위해 서로 도와야 하며, 믿어야 하며,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함께함은 하나 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설 수 있게 서로 지지하는 숲과 같은 마음입니다.

함께함을 실현하고 그 속에서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며,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학교 교육목표

함께 하는 배움으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알뎡누리 교육

알짜인



함께 깨우치고 자라나는 알짜인

알뎡인



산과 같은 마음을 지닌 알뎡인

누리인



넓은 세상을 이끌 누리인

3. 특색교육 활동

깊이 있는 사고로 책 읽는 재미를 느껴요

- 책과 친해지는 습관을 만드는 독서 통장 운영 (1~3학년)
- 깊이 있는 독서 활동 속에서 논리력을 기르는 독서 디베이트 학습 (4~6학년)
- 책과 친해지는 독서체험학습 (1~6학년)
- 온 책읽기 (1~6학년)
- ‘빛깔 있는 독후 프로젝트 활동’(1~6학년, 연 2회 운영)

4. 창의 인성 체험활동

▣ 학교폭력 없는 어울림 공동체 조성	▣ 자기 꿈 실현 진로 지도	▣ 심미적 체험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 사랑 주간 운영 -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발달 검사(5~6학년) 및 진로 체험학습 -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 체험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 실시 - 영화 수업 실시(4~6학년)

5.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1. 방학중 프로그램

사업명	프로그램명	대상	운영시간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A	1~6학년 희망자	주5회, 일 3시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캠프
	프로그램B	1~6학년 희망자	주5회, 일 3시간	
초등돌봄교실	돌봄	1~4학년 희망자	주5회, 일 3시간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

교시 \ 요일	월	화	수	목	금
5교시 (13:20~14:00)	정규수업	①,② :돌봄	정규수업	①,②:돌봄	정규수업
6교시 (14:10~14:50)	①②영어/돌봄	①②,③ 플룻바이올린난타 돌봄	①,②:돌봄	①②,③: 플룻바이올린난타 돌봄	①,②: 창의보드,돌봄
	③:스포츠 ④:돌봄	④:전래놀이 돌봄	③:미술, 창의로봇	④:돌봄	
	정규수업	정규수업	④:영어 ⑤,⑥:컴퓨터 ⑤:⑥:화상영어	정규수업	정규수업
7교시 (15:00~15:40)	①②:돌봄	①②:전래놀이 돌봄	①②:미술,창의로봇 ③:돌봄	①②: 돌봄 스포츠클럽	①②: 돌봄
	③:영어,돌봄	③:돌봄	④:컴퓨터	③: 돌봄	③,④: 창의보드, 스포츠교실
	④,⑤,⑥: 스포츠	④,⑤,⑥ 플룻바이올린난타	⑤,⑥:영어	④,⑤,⑥ 플룻바이올린난타	⑤,⑥: 창의보드 ⑤⑥:화상영어
15:40~16:30	귀가 및 하교 안전 지도				

3.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용

구 분	프로그램 내용	
초등돌봄 전담사 프로그램	① 자기주도활동	단어퍼즐, 받아쓰기, 스도쿠, 과제해결
	② 교구활동	블록 쌓기, 퍼즐 맞추기, 도미노, 자석교구, 보드게임 등
	③ 창의활동	클레이, 지점토, 색종이 접기, 풍선아트 등
	④ 독서활동	그림책 읽기, 독후 표현 활동
	⑤ 놀이활동	전래놀이, 강당놀이
안전교육	매월 1회 학생 안전 교육 실시	

초등돌봄 전담사	시간	월	화	수	목	금
	12:30~15:40	자기주도활동	교구활동	놀이활동	독서활동	창의활동
	15:40~16:30	하교지도	하교지도	하교지도	하교지도	하교지도

2

연간 학사 일정

2021학년도 1학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 월	삼일절	1 목		1 토		1 화		1 목		1 일	
2 화	사업식 및 입학식 미세먼지안전교육	2 금		2 일		2 수		2 금	다문화이해교육	2 월	
3 수		3 토		3 월	제량휴업일	3 목		3 토		3 화	
4 목		4 일		4 화	제량휴업일	4 금		4 일		4 수	
5 금	진단검사(3,4,5,6)	5 월		5 수	어린이날	5 토		5 월		5 목	
6 토		6 화		6 목		6 일	현충일	6 화		6 금	
7 일		7 수		7 금		7 월		7 수		7 토	
8 월		8 목		8 토		8 화		8 목		8 일	
9 화		9 금	찾아가는자연학교 (3,4) 환경교육(5,6)	9 일		9 수		9 금		9 월	
10 수		10 토		10 월		10 목		10 토		10 화	
11 목		11 일		11 화		11 금		11 일		11 수	
12 금		12 월		12 수		12 토		12 월		12 목	
13 토		13 화		13 목		13 일		13 화		13 금	
14 일		14 수		14 금	어울림공동체체험학	14 월		14 수		14 토	
15 월		15 목		15 토		15 화		15 목		15 일	광복절
16 화		16 금	환경교육(5,6)	16 일		16 수		16 금		16 월	
17 수		17 토		17 월		17 목		17 토		17 화	
18 목		18 일		18 화		18 금		18 일		18 수	
19 금		19 월	회복적 생활 교육 (2,3)	19 수	부처님오신날	19 토		19 월		19 목	
20 토		20 화	회복적 생활 교육 (2,3) 학교폭력예방교육 장애인권교육	20 목		20 일		20 화		20 금	
21 일		21 수	과학체험의 날	21 금	찾아가는자연학교 (1,2)	21 월	찾아가는자연학교 (3)	21 수		21 토	
22 월		22 목	회복적생활교육(2,3) 환경교육(4)	22 토		22 화		22 목		22 일	
23 화		23 금	환경교육(3)	23 일		23 수		23 금	여름방학식	23 월	
24 수		24 토		24 월		24 목	빛깔있는독후발표	24 토		24 화	
25 목		25 일		25 화		25 금	찾아가는자연학교 (5,6)	25 일		25 수	
26 금		26 월		26 수	재난대응훈련	26 토		26 월		26 목	여름개학식 미세먼지안전교육
27 토		27 화	환경교육(1,2)	27 목		27 일		27 화		27 금	
28 일		28 수		28 금		28 월		28 수		28 토	
29 월		29 목		29 토		29 화	교통안전교육 (1,2,3)	29 목		29 일	
30 화		30 금		30 일		30 수		30 금		30 월	
31 수				31 월				31 토		31 화	어울림체육대회 (5,6)
수업일	22		22		17		22		17		4

2021학년도 2학기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 수	어울림체육대회 (12위)	1 금		1 월		1 수		1 토	신청	1 화	설날
2 목	어울림체육대회 (34)	2 토		2 화		2 목		2 일		2 수	설연휴
3 금	현장체험학습	3 일	개천절	3 수		3 금		3 월		3 목	겨울개학식
4 토		4 월		4 목		4 토		4 화		4 금	
5 일		5 화		5 금		5 일		5 수		5 토	
6 월		6 수		6 토		6 월		6 목		6 일	
7 화		7 목	어울림공동체협학 (1,2,3,4) 어울림진로체험학 (5,6)	7 일		7 화		7 금		7 월	
8 수		8 금	어울림진로체험학 (5,6)	8 월		8 수	난산나눔장터	8 토		8 화	
9 목		9 토	한글날	9 화		9 목		9 일		9 수	
10 금		10 일		10 수		10 금		10 월		10 목	
11 토		11 월		11 목		11 토		11 화		11 금	졸업식
12 일		12 화		12 금		12 일		12 수		12 토	
13 월		13 수		13 토		13 월		13 목		13 일	
14 화	119안전체험 (2,5)	14 목		14 일		14 화		14 금		14 월	
15 수		15 금		15 월		15 수		15 토		15 화	
16 목		16 토		16 화		16 목		16 일		16 수	
17 금		17 일		17 수		17 금		17 월		17 목	
18 토		18 월		18 목		18 토		18 화		18 금	
19 일		19 화		19 금		19 일		19 수		19 토	
20 월	추석연휴	20 수		20 토		20 월		20 목		20 일	
21 화	추석	21 목		21 일		21 화		21 금		21 월	
22 수	추석연휴	22 금	지진대피훈련	22 월		22 수		22 토		22 화	
23 목		23 토		23 화		23 목		23 일		23 수	
24 금		24 일		24 수		24 금	겨울방학식	24 월		24 목	
25 토		25 월	독도교육 다문화이해교육	25 목	빛깔있는독후발표 알피누리예술축제	25 토	성탄절	25 화		25 금	
26 일		26 화		26 금	장애인권교육	26 일		26 수		26 토	
27 월		27 수		27 토		27 월		27 목		27 일	
28 화	학교폭력예방교육	28 목		28 일		28 화		28 금		28 월	
29 수	화재재난훈련	29 금		29 월		29 수		29 토			
30 목		30 토		30 화		30 목		30 일			
		31 일				31 금	종업식	31 월	설연휴		
수업일	19		21		22		18		0		7
※ 수업일수 : 1학기 100일, 2학기 91일 계:191일											

※위 일정은 교육과정 운영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란?

- 개인의 사적 영역과 관련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
 - 일반적 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가족관계 등
 - 통신, 위치정보: 통화, 문자 내역, IP주소, 화상정보, GPS등의 정보
 - 금융정보, 신용 정보, 신체정보, 의료 건강정보, 성향, 신념, 사상 등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제24조의2)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
2. 정보추제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신체, 생명,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



□ 마이핀의 사용

- 마이핀은 오프라인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13자리 번호로 온라인,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이핀이란?

마이핀은 오프라인(일상생활)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13자리 번호입니다.

2014년 8월 7일부터 이용가능

마이핀의 사용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적근거가 없으나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 일상생활에는 My-PIN을 사용하세요!

마이핀, 발급은 어떻게?

인터넷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공I-PIN센터 (www.g-pin.go.kr)
나이스 평가정보 (www.nicepin.co.kr)
서울신용평가정보 (www.siren24.co.kr)
코리아 크레딧뷰 (ok-name.co.kr)

- ▶ 개인정보 침해신고나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 118, (인터넷)www.privacy.go.kr로 연락하세요.

3-2

학부모 연수 - 아동학대, 가정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1 아동학대란?

-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아동복지법 제5조제2항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가정폭력이란?

-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 ✓ 흔히 신체적 폭력만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형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학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3 체벌은 바람직한 훈육방법일까요?

- ✓ 체벌은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선택이 그 행위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결과가 됩니다.
- ✓ 체벌은 아동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를 유발하지 않으며, 아동이 자각하지 않는 한 교육적 효과는 없습니다.
- ✓ 오히려 체벌의 부작용으로 체벌을 가한 사람과의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만들 우려가 있으며, 아동들은 체벌을 통해 폭력성을 학습하여 학교폭력, 가정폭력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아이 중심으로 생각해주세요

아동중심의 양육(아동학대예방)



- 차별 없이 자녀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해주세요.
- 자녀에게 애정과 격려를 통해 긍정적 발달을 도와주세요.
-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해주세요.
- 자녀의 성장과 안녕을 위해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세요.
-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는 동시에 자녀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귀 기울여 주세요.

-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해내갈 수 있도록 적절히 도와주세요.
-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을 가족전체 속에서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체벌은 안돼요).
- 자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녀를 중심으로, 자녀와 함께 의사결정을 해주세요.
- 자녀를 존중하는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 자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질서나 규칙을 함께 선정하고 합의하여 지켜 나가도록 도와주세요.
- 부모 자신의 긍정적·낙천적·진취적인 삶의 가치들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훌륭한 모델이 되어주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013) - 아동권리에 기반한 부모교육

5 아동학대 대처 방법

112로(또는 129, 119)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경찰에 1차 접수 후 지역아동보호전문 기관으로 연결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후의 절차를 담당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빠른 개입을 위해 112에서는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혹시 내 이웃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가 있는지 관심 가져 주시고, 이웃과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 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 ✓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는 아동을 보았을 때
- ✓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 질환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때
- ✓ 잦은 결석 또는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 할 때
- ✓ 친족 성 학대, 성매매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았을 때

3-3

학부모 연수- 나와 우리의 소중한 인권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친인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으리라 믿고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의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올바른 인권지킴이가 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 가족의 인권 지수를 알아볼까요?

☞ 어린이가 체크(✓) 해 봅시다.

내 용 (학생용)	체 크		비 고
	○	×	
1. 화가 나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 표현을 한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2개 이하 인권 지킴이 ▶ 3개-6개 인권 노력이 ▶ 7개 이상 인권 오염이
2.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때가 더 많다.			
3. 가족들 사이에도 비밀은 지켜지지 않는다.			
4.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시지 않는다.			
5. 형제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이 귀찮다.			
6. 잘못을 했을 때는 자주 매를 맞는다.			
7. 형제들과 비교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다.			
8. 부모님이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시기도 한다			

☞ 부모님께서 체크(✓) 해 봅시다.

내 용 (학부모용)	체 크		비 고
	○	×	
1. 가족과 함께 하는 일들이 많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2개 이하 인권 오염이 ▶ 3개-6개 인권 노력이 ▶ 7개 이상 인권 지킴이
2.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는다.			
3. 아이들의 비밀은 언제나 지킨다.			
4. 부모의 감정 상태에 따라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는다.			
5. ‘애들이 뭘 알겠어?’ 라는 생각을 자주한다.			
6. 아이들의 의사표현에 귀를 기울인다.			
7. 아이들이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8. 아이들 앞에서는 부부간에 정중한 언어사용을 한다.			

◇ 회복탄력성을 길러주는 사랑의 대화 방법 ◇

1 아이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주기

① 게임에 빠진 아이

-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게임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압니다. 게임 중독증 수준이 아니라면 적당한 선에서 아이와 타협해야 합니다. 폭력성, 선정성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되, 사전에 게임하는 요일, 시간, 약속을 어겼을 때의 벌칙까지 의논한 후에는 아이를 믿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친구 관계 고민

- 사춘기 아이들에게 또래 집단은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는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만큼 두렵고 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 아이가 친구 문제로 고민한다면 일단 공감해주고, 믿고 스스로 해결할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사회성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왕따처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친구와 친해지기 위한 몇 가지 공약을 만드는 등,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2 내 아이가 실패를 극복하게 도와주는 8가지 방법

①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자!

- 아이의 실수를 지적할 때 먼저 칭찬을 해주세요. 부모가 칭찬과 감사의 말을 통해 공감과 이해를 전달하면, 아이는 부모의 지적을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② 실수를 간접적으로 지적하자!

- 칭찬을 하고 난 뒤에는 곧바로 ‘그러나’, ‘그런데’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를 지적하더라도 비난이 아닌 격려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③ 부모의 실수를 먼저 인정하자!

- 부모가 자신 또한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 아이도 꾸중을 거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④ 명령하지 말고 요청하자!

- 아이의 의견을 묻고 협조를 요청하면 반발 대신 협조를 얻게 됩니다.
-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⑤ 아이의 체면을 살려주자!

- “네가 하는 짓이 뻔하지 뭐”, “엄마 말 안 듣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식의 말은 아이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 형제나 남을 앞에서 아이를 꾸짖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칭찬은 크게, 비난은 조용하게 해야 합니다.

⑥ 작은 진전에도 칭찬을 잊지 말자!

⑦ 아이를 높게 평가하자!

- 아이를 격려하고 믿어준다면 아이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성공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합니다.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어주고 높게 평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⑧ 실수는 고치기 쉽다는 걸 알게 하자!

- 아이들에게 어떤 일은 ‘되돌릴 수 없는’ 큰 실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수로 괴로워하는 아이를 보듬어 줄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의외로 쉽게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세요.

1 학교 폭력의 유형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등

2 학교 폭력의 피해 징후

1. 갑자기 최근에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2. 불안한 기색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3.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에게 혼자만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한다.

3 학교 폭력의 가해 징후

1. 반항하거나 화를 잘 낸다.
2. 귀가 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하다.
3.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4 학교폭력 대처 방법

가. 피해학생이라면



해야 할 일

아이를 응원해 주세요.
'절대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라며 아이를 지지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세요.

증거를 확보하세요.
예) 문자메시지, 이메일, 상해진단서 등

보호해주세요.
교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려 주세요.



해서는 안되는 일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은 당신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피해사실을 축소, 은폐하지 마세요.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순 없습니다.

도피하지 마세요.
문제회피, 침묵, 전학, 이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나.가해학생이라면



해야 할 일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세요.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피해학생에게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부인하지 마세요.

가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피해학생을 닦하지 마세요.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커다며 폭력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불안, 걱정, 두려움으로 책임을 회피할 순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6 학교폭력 신고 방법

1. 학교의 담임교사나 학교폭력예방 담당교사, 그 외 교사에게 말하기
2.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전화하기
 - 112(범죄신고)
 - 117(학교폭력신고센터)
 - 1388(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1588-9128(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7 자녀 학교폭력 예방 도움 자료실

- 학교폭력예방 도란도란 홈페이지(<http://doran.edunet.net>)
- 에듀넷 티클리어(<http://www.edunet.net>→ 사이버폭력예방·정보윤리교육)
- 언어폭력 예방 및 학생언어문화개선 관련 자료(<http://kfta.korea.com>)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11.5%의 학생은 자살생각을 가지고 있고 2.4%는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이 시작되었다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 하지만 어른들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예민하게 살펴보면 자녀의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싶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할 때 보이는 언어, 행동, 정서표현의 신호들이 무엇 인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죽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는 시기는 만 10세 경입니다.

- 만 10세 이전의 자녀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할 때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이 아니라, 너무 힘들다는 호소일 수 있습니다.
- 죽고 싶다는 자녀의 호소를 무시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2 죽음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보이는 징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식사와 수면 습관이 변합니다. 식사를 잘하지 못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 2) 짜증이 늘어나고 침울하고 우울하게 보입니다.
- 3) 두통, 복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합니다.
- 4) 일기장이나 SNS에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 5) 지각, 등교 거부 등 평상시 해오던 일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 6) 집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을 수 있습니다.
- 7)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 8) 스스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위험한 행동을 보입니다.
- 9) 사후 세계를 동경하거나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 10)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평소 아끼던 소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 11) 방에 혼자 있으려고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자주 합니다.
- 12) 이상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갑자기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3 자녀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반드시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너 요즘 많이 침울해 보이는데, 혹시...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니?”
 “너가 죽고 싶다고 써 놓은 메모를 봤어. 엄마는 너무 걱정되는구나.”

2) 매우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충분히 들어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 언제부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보세요.
-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지를, 죽으려는 행동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 자살의 위험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3)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고 아이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세요.

- ‘죽겠다’는 자녀의 말이 단순한 투정으로 느껴지더라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 서서 진지하게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4) 자녀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지해 줍니다.

“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어, 도와줄게”

“너 생각보다 엄마는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친구들도 있잖아.”

5)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방안을 함께 모색하세요.

“엄마(아빠)가 널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그런 일이 있어서 네가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던 거구나.

그 일을 엄마(아빠)가 도와 줄 테니 함께 해결해보자.”

“내가 보기엔 네가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함께 병원에 가보지 않을까?”

6) 분위기 쇄신을 위해 자녀의 요구조건을 일부 들어주기도 하고 가족 간의 외식이나 즐거운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처방입니다.

7)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만일 어느 시점에서 자살을 감행하려는 전조나 불안한 기운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 들어줄 개’ 상담방법

- 휴대폰에서 ‘다 들어줄 개’ 어플을 다운받는다.
- 카카오톡 ‘다 들어줄 개’로 플러스 친구를 맺는다.
- ‘1661-5004’ 번호로 문자를 보낸다. (※) 전화상담은 불가함
- 페이스북에서 ‘다 들어줄 개’를 검색하여 메시지를 보낸다.

3-6

학부모 연수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1.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등학교 및 대학 등에 적용되며,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 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에 의하면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정규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 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때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하는 학습을 말합니다.

3.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교의 책무 - 공교육 정상화법 제5조, 제7조 참고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이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도 원하는 진로진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교사는 학생이 정상적인 수업 활동 참여만으로도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지도 및 평가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시·운영해야 하며, 관찰, 상담, 정보제공 등으로 학생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고 학교생활에 임하도록 도와야 한다.

4. 학부모의 책무 -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선행학습의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2021학년도 알뜰누리 교육과정 설명 자료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됩니다.

나.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됩니다.

다.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 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유·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7조 8천억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6. 기타 사항 - 적용 배제 관련

가. 영재교육기관, 조기 진급자, 적용 배제 교과(군),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 적용 배제되는 교과(군)은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등입니다.

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내용

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8. 공교육정상화법의 기대효과

가.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평가를 금지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 구현합니다.

나.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실현합니다.

교권이란?

- ◆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 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 ◆ 교육법규에 따른 교원의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교수·학습 내용 편성권, 교수·학습 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 요구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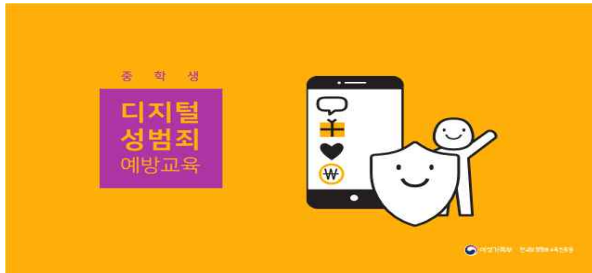
교육활동 침해란?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2019.10.17.))제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 교원지위법은 “교권”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 교권의 개념과 보호범위가 불분명하여 교권침해 행위를 정의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교권 침해와 교육활동 침해는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교원지위법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관련 심의·조정 기구이다.

<< 교육활동 침해 유형 >>

상해와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상적인 신체의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협박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명예훼손 및 모욕	공연(公然)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정보 유통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무집행방해 (국·공립학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업무방해(사립학교의 경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유포 협박, 전시·판매하는 등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일컫는다.

» 디지털성범죄 유형

- ① **불법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 ② **유포** :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③ **소비** :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 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

-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 후 게시(몰래 찍은 후 온라인유포)
- **성적촬영물 비동의 유포**
- **디지털 그루밍**-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 다양한 통제 및 조종기술을 사용하는 것 (주로 아동청소년대상으로 일어남)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단톡방 성희롱, 게임 내 성적모욕)
- **유포협박**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포협박)
- **재유포 및 제3자유포** (최초 유포 이후 2차유포)
- **사진 성적 합성 후 게시**(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하여 성적으로 이용)

🔔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



전문 기관 목록

-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평일 10:00-17:00)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stopds)
-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 817-7959 (평일 10:00-17:00)
- ▶ 한국성폭력상담소 02) 338-5801 (평일 10:00-17:00)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women1366'으로 검색)
- ▶ 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가능)
-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24시간 전화 상담) #1388 (24시간 문자·카카오톡 상담)

디지털그루밍 대처방안

- 나이, 주소, 학교, 아이디,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제공 요청
-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
- 따로 메신저로 연결하자고 제안
-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따로 만나자고 제안
- 사진 및 동영상 제공 요청

거절하고 이런 제안이 있었음을 보호자에게 말하기



1 청소년 흡연을 금하는 이유




<p>어릴 때 시작하면 끊기도 힘들어!</p> <p>니코틴 중독이 더 심하다.</p>	<p>일찍 담배를 피우는 것은 자살행위와 마찬가지야!</p> <p>15세 이전 흡연은 25세 이후 흡연자보다 폐암 등 사망률이 2~3배 높다.</p>
<p>어릴 때 흡연은 2세에게까지 나쁜 영향을!</p> <p>청소년 흡연은 유전자변형을 일으켜 2세에게 나쁜 유전자를 전한다.</p>	<p>머리가 멍해지는 것도 담배 때문!</p> <p>일산화탄소로 두뇌활동이 저하되고 학습능력이 떨어진다.</p>
<p>담배를 안 피웠다면 나도 더 크고 건강했을 텐데...</p> <p>성장기는 세포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 흡연은 세포의 성장을 방해한다.</p>	<p>같은 양을 피우더라도 체적이 작아 피해가 더 커요!</p> <p>성인에 비해 용적이 작아 피해가 더 크다.</p>

2 간접 흡연과 3차 흡연

- **간접흡연**이란,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와 담배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이마시므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을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먼지 등의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를 **3차 간접흡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흡연을 하는 경우 나머지 가족 역시 흡연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차 흡연		흡연자 본인의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내장, 치매, 뇌졸중, 류마티스 관절염, 체장염■ 폐암, 유방암, 신장암,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우울증, 만성스트레스, 정자 손상 등 초래			
2차 흡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울증, 당뇨병, 고혈압, 동맥 손상■ 성대 손상, 유방암 등			
3차 흡연		옷, 벽면에 붙은 연기로 인한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 유해물질과 결합 - 발암 물질 생성■ 어린이, 유아, 태아에게 피해 집중■ 니코틴 중독, 태아 폐 발달 저해, 천식 등			

•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음식점 흡연석		2시간 체류		1개비 반 흡연효과
	흡연 차량		1시간 체류		3개비 흡연효과
	하루 한 갑 피는 집		24시간 체류		3개비 흡연효과
	흡연 술집		2시간 체류		4개비 흡연효과
	흡연 사무실		8시간 체류		5개비 흡연효과

1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등교 전에 자녀에게서 **발열(37.5도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등)**이 나타나면 등교를 하지 않고 가정에서 3~4일 경과를 관찰하시고, 담임교사에게 자녀의 경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2~4일 안정 경과 후에도 고열(38도 이상)과 증상이 심해지면 질병관리본부(콜센터 1339) 또는 김제보건소(540-4553)에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안내에 따르신 후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교 전 **매일 아침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 진단결과 ‘등교가능’ 이 나온 경우에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나. 등교 시 **모든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여유분 마스크 이름 표기하여 지참)

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어 집에서 3~4일 관찰 기간 후**, 더 이상의 증상이 없어져 등교를 할 때는 **학부모확인서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제출합니다.(서류 양식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라. 본인 및 동거인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거나 확진,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등교 중지되며 학교에 연락합니다. 자가격리 해제 및 검사 상 음성이 나올 경우 등교 시 관련 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 됩니다 (자가격리 통지서, 격리통지문자 등)

마.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미리 담임교사에게 말씀해 주세요.

☞ 고위험군 학생: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 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 발달장애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외부인들을 통제**하고 있으니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 마스크 미착용자, 발열 등 관련증상이 있는 방문자는 출입 통제

사. **가정에서도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아.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학교 후, 주말동안 등)

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을 하도록 해주세요.

☞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마스크 착용 등

2 그 외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법정 감염병

병명	병원체	감염경로	전염 가능 기간 (등교중지 기간 참고)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인두분비물, 객담 → 비말감염	해열 후 2일 경과까지
수두	수두바이러스	인두분비물 → 비말감염	모든 발진이 딱지가 앉을 때까지(약 7일)
유행성 이하선염	엡스바이러스	타액 → 비말감염	증상발현 후 5일까지 (이하선종창 소실일 까지)
유행성 각결막염	아데노바이러스	눈곱, 분변 → 접촉감염	주요 증상 소실 후 2일 경과까지
홍역	홍역바이러스	인두분비물 → 비말감염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해열 후 3일 경과까지)

- 위의 학생에게 발생하는 주요 법정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이 됩니다.

1) 전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선생님께 연락한 후 병원에 갑니다.

2)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이 나면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하시고 격리 치료를 합니다.

3) 치료, 완치 후 병원에서 확인 받은 의사의 진료 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감염병으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우리 아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해지려면?

미세먼지를 알아볼까요?

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입자 크기의 오염물질입니다. 미세먼지 중 머리카락 두께의 20분의 1 정도 지름인 먼지, 즉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을 정도로 유해성이 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봄과 겨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편입니다.(여름과 가을에 비해 약 17 $\mu\text{g}/\text{m}^3$ 정도 높습니다.)

※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12~3월) 동안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차량 2부제 시행(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 시행 중)



미세먼지 나쁜 날, 몸이 좋지 않은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학교와 유치원에서는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날에는 미세먼지 민감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학생의 질병 결석을 인정합니다.

미세먼지 질병결석 절차 - 학교

1.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임을 인정한 의사의 진단서(또는 의견서)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2.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합니다.
3.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 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도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학부모의 의견서나 담임교사 확인서만으로도 질병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음

※. 단,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미세먼지 질병결석 절차 - 유치원

1. 미세먼지 '나쁨'인 날(수업시작 전까지)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및 전화)합니다.
2.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으로 질병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일수에 미포함되며, 유아학비 지원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

학원, 놀이터 등 밖으로 많이 나가는 우리 아이들, 미세먼지로부터 이렇게 지킬 수 있습니다.

- '우리동네 대기정보'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파악 합니다. (환경부, 에어코리아 제공)

- 시도별 대기현황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정보, 대응요령 등 다양한 대기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 물청소를 통해 실내 공기를 개선합니다.

- 물걸레를 이용한 청소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물걸레로 청소를 하면 바닥에 가라앉은 먼지가 다시 날릴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요리할 때 공기청정기를 켜두지 않습니다.

- 요리하는 동안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기름 입자가 공기청정기 필터를 막아 공기정화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요리를 마치고 환기를 한 후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에 돌아온 후에는 손과 얼굴을 씻고 양치질을 합니다.



- 외출 시 마스크 이외에도 모자나 보호 안경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 마스크는 착용법에 따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하며, 호흡곤란 시 바로 벗도록 합니다.

